

사전 편찬과 독서

_ 조재수 / 겨레말큰사전 남측 편찬 위원

사전 편찬을 위해서도 많은 독서가 필요하다. 알다시피, 독서에는 대충대충 빨리 읽는 ‘속독(速讀)’이 있고,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는 ‘정독(精讀)’이 있다. 느리더라도 정독을 하는 것이 바른 독서다. 정독을 ‘새겨읽기’라 해도 좋겠다. 느린 독서와 뜻 새겨 읽기를 주로 하는 직업인이 있다. 사전 편찬인들이 그에 속한다. 사전 편찬인은 말더미 속에서 일상을 보낸다. 수집한 말뭉치의 문장들을 따져가며 말을 찾고 그 뜻과 쓰임새를 밝히는 일에 열중한다. 그래서 그들의 독서는 느리다. 사전 편찬은 느린 일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정독을 하며, 우리의 독서 자료는 얼마나 정확할까? 세상의 책을 가운데 정확성을 제일로 치자면 먼저 사전을 꼽을 것이다. 정확해야 할 사전의 운명은 사전에 다룰 말 자료의 정확성과 편찬인의 정확한 통찰력에 달렸다. 자료의 말과 문장이 정확해야 하고, 말의 자료를 검토하여 적용하는 편찬인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정확해야 한다. 국어사전은 바른 국어 자료의 말과 문장을 실을 수 있어야 바른 국어사전이 된다.

사전 편찬을 위한 말자료(‘말뭉치’)에는 소설 등의 문예작품이 대종을 이룬다. 문예작품은 제 계층의 삶과 생각의 자취를 많이 담고 있는 언어 자료이기 때문이다. 사전 편찬인은 많은 어휘와 문장의 숲을 돌아다닌다(섭렵한다). 낱말의 말과 그 말을 부러 쓴 문장들을 눈여겨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여러 곳에서 구축된 국어 말뭉치는 1억 어절이 넘는 거대한 분량이다. 이 가운데는 같은 작품이 판본에 따라 어휘 형태, 표현 등에 차이 나는 것들이 있다. 때로는 아주 엉뚱하게 다른 경우도 만나게 된다.

한 작가의 글을 두고 그 원본 원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출판사 어느 선집의 글이 바르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초간본이라도 볼 수 있을 때는 큰 도움이 된다. 같은 내용의 글이 어휘나 표현에 차이가 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철자나 띄어쓰기, 문장부호도 문제지만 심각한 오류는 어휘나 글마디의 변형에 있다. 철자나 띄어쓰기를 지금의 기준으로 고치는 것쯤은 양해 사항으로 통한다. 어휘의 오류는 우선 조판과 교정의 잘못에서 나올 수 있고, 심하게는 편집자들이 방언(사투리)이라 하여 표준어로 바꾸는 일 등에서 생긴다. 글마디의 변형은 흔히 운문이라 하여 표현을 다듬거나 고치는 데에서 비롯된다. 설부터 고칠 일이 아니다. 글쓰이의 생각도 중요하고 글쓰이가 부러 쓴 언어도 그대로가 중요하다. 특히, 사전 편찬 자료로는 글쓰이의 일차 어휘와 문장이 중요하다. 사전 편찬인은 함부로 말을 깎거나 줄여서는 안 되며 있는 그대로의 언어와 표현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생생한 언어의 자취가 정확하게 보존될 수 있다.

이효석(1907~1942)이 ‘모밀꽃’, ‘모밀밭’이라 쓴 것을 ‘메밀꽃’, ‘메밀밭’으로 고쳐버리면 이는 이효석의 어휘가 아니다. 또 달빛 아래 피기 시작한 너른 모밀밭의 모밀꽃을 두고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흠뻑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얗었다**”고 했다. <이효석: 모밀꽃 필 무렵>(조광, 1936. 10.) 이를 그 뒤에 나온 출판사의 판본들에는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라고 고쳐버렸다. <이효석: 메밀꽃/모밀꽃 필 무렵>(어문각, 1994, 1936)/(동아출판사, 1995, 1936) 모밀꽃이 달빛을 받아 “**숨이 막혀 하얗었다(하얗다)**”는 하얀 소금을 뿌린 듯 한 꽃의 흰빛을 그린(묘사한) 것인데, “**숨이 막힐 지경이다**”로 끝맺으면 그 흰빛은 없어지고 숨 막힐 듯 한 상황만 그린 것이 된다. 왜 초간본과 달리 이런 수정이 필요했을까? 초간본이 작가의 원본 또는 그에 가까운 글이라면 이런 수정은 작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어사전에 ‘메밀꽃’은 있으나 ‘모밀꽃’은 사라졌고, 컴퓨터로 ‘모밀꽃’을 치면 자동 교정기가 번번이 ‘메밀꽃’으로 고쳐버린다. 누가 이런 교정기를 만들게 했는지? 이효석의 ‘모밀꽃’을 되찾아 주는 일, 우리말 하나를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문예작품의 말과 글, 어떤 모습으로 간직되고 전해지는지 국어사전에서 이따금 꺼내보기로 한다.

데시근하다/ 다시근하다/ 되시근하다/ 되시근하다/ 다시근하다

북에서 낸 <조선말 사전>(1961년)에 ‘**데시근하다**’를 처음 올렸다(아래).

데시근하다 [형] (언행미) 씨가 먹지 않고 미적지근하다. || **데시근한** 소리. 행동이 **데시근하다**.

이 <조선말 사전>은 조선어 학회(한글학회)가 낸 『조선 말 큰 사전』(나중에 ‘큰 사전’이라 함. 1929~1957)을 북에서 처음 보충한 사전이다.

그런데, 북의 <조선말대사전>(1992년)은 ‘**데시근하다**’ 이외 ‘**다시근하다**’, ‘**되시근하다**’를 더 올렸다(아래).

데시근하다 [형] (말이나 행동미) 씨가 먹지 않고 미적지근하다. || **데시근한** 소리. 행동미 ~. [같은] 데식다①.

다시근하다 [형] 약간 쓰끄끔하다. | 한 몽둥이에는 어깨마디를 얻어맞았지만 **다시근하게도** 여기지 않았다. <림격정 1>

되시근하다 [형] (대하는 태도가) 별로 대단스레 여기는 맛이 없고 쓰뜻미적지근하다. | 격정의 말에 다른 두형들은 모두 회심하려 하는데 **곽오주** 혼자만은 **되시근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무뚝뚝한 말소리로 지껄었다. <림격정 3>

새로 올린 ‘**다시근하다**’와 ‘**되시근하다**’는 소설 <림격정>에서 추가한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세 말은 표기는 다르지만 뜻풀이와 인용문을 참고해 보면 그렇게 별개의 말이 아닐 듯 싶다.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역사 소설 <림격정(林巨正)>은 홍명희(1888~1968)가 1928년 11월 21일부터 1939년 3월 11일까지 <조선일보>에 발표하고, 이어 1940년 <조광> 10월호에도 발표했으나 미완으로 끝난 작품으로 전해진다. 오늘날 손쉽게 볼 수 있는 남녘 판본으로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1991년에 낸 <林巨正>이다. 초간본으로는 조선일보(1939년)판의 일부(?)를 검색해 볼 수 있다. 북에서는 광복 직후에 나온 것(을 유문화사, 1948년 판?)을 1950년대에 철자만 일부 고쳐 낸 것이 있고, 1980년대에 미완의 부분을 홍명희의 손자 홍석중이 상상하여 쓴 것이 있다 한다 <김재용 교수>.

소설의 주인공 ‘림격정’은 지은이가 조선일보에 연재할 때 제목을 한자로 ‘林巨正傳’이라 쓰고 본문에는 ‘림격정’이라 했는데 이것이 철자법 차이로 남녘에는 ‘임격정’, 북에서는 ‘림격정’이 되었다. 한글로 제목을 붙인다면 ‘임격정전, 림격정전’이 아니라, ‘임격정전, 림격정전’이 바를 것이다. 소설 제목을 한자로 <林巨正>이라 쓰면 본 이름 ‘격정’이가 ‘거정’으로 착각하게 된다.

위에서 본 <조선말대사전>의 ‘**다시근하다**’, ‘**되시근하다**’와 그 출전인 <림격정>의 인용문을 남녘 판본과 비교해 본다. (밑줄 친 부분을 눈여겨보기 바람)

*한 몽둥이에는 **어깨마디를 얻어맞았지만 다시근하게도** 여기지 않았다. <림격정 1>(북)

*한 몽둥이에는 **어깨마디를 얻어맞았으나 데시근하게도** 여기지 **않고** <홍명희: 임격정>(사계절 출판사, 1991년)

*한 몽둥이에는 **어깨마디를 얻어 맞으나 되시근하게도** 여기지 **안고** <홍명희: 임격정>(조선일보사, 1939년) | 주1 어깨마디(**어깨바디**)->어깨부들기: 어깨의 뿌리, 또는 그 언저리.

*다른 사람 같으면 그만 앞으로 **꼬꾸라질** 것인데 총각은 **데시근하게도** 여기지 않고 **꿋꿋이** 서 있었다. <홍명희: 임격정>(사계절 출판사, 1991년)

*다른 사람 가르면 고만 아프로 **고끄라질** 것인데 총각은 **되식은 하게도** 여기지 안고 **꿋꿋이** 서 있다 <홍명희: 임격정>(조선일보사, 1939년)

*격정의 말에 다른 두형들은 모두 **회심하려** 하는데 **곽오주** 혼자만은 **되시근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무뚝뚝한 말소리로 지껄었다. <림격정 3>(북)

*격정의 **서글픈 말끝에** 다른 두형들은 모두 **회심하여** 하는데 **곽오주** 혼자 **데시근도** 않게 **여기며** “……” 하고 무뚝뚝한 말소리로 지껄어냈다. <홍명희: 임격정>(사계절 출판사, 1991년)

*격정의 **서글픈 말끝에** 다른 두형들은 모두 **회심하야** 하는데 **곽오주** 혼자 **되식은 도안케** 여기며 “……” 하고 무뚝뚝한 말소리로 지껄어냈다. <홍명희: 임격정>(조선일보사, 1939년)

<조선일보사>(1939) 판본에, ‘**다시근하게도**’, ‘**되식은**……’으로 적은 것을, 북에서는 ‘**다시근하다**’, ‘**되시근하다**’ 두 가지로 적어 두 올림말로 실었고, 남녘 사계절 출판사본에는 모두 ‘**다시근하다**’로 적어 <조선말 사전>(북, 1961)과 일치한다.

이 밖의 작품들에서도, ‘**데시근하다**’와 ‘**되시근하다**’를 찾아 볼 수 있다.

*상도는 그런 일에는 흥미가 없었지만 미순의 일이라 미신일망정 **데시근하게** 들을 수 없었다. <한설야 탐>(동아출판사, 1995/1942)

*그 자식들이 편치 먹인 창문들을 어느새 다 고쳐놓았네.” (중략) “아무튼 걸작들이야.” “한 주일 정확쯤은 **데시근하게도** 안 여길걸.” <김학철: 격정시대>(연변, 1998)

*“…… 미군은 우리 경찰의 허가를 받은 사냥군인데……” 수석 놈의 이렇듯 **데시근한** 태도에 약이 바삭 오를 아마다가 이때를 참지 못해 더 한층 본색을 드러냈다. <김종원: 아름다운 밤>(북, 1978)

*선홍이는 묶인 팔과 등판에 은근히 힘을 주어 보았다. **되시근하기**는 하였으나 일시에 힘을 주면 **꿋꿋** 듯도 하였다. <황석영: 장길산(3-344)>(현암사, 1976)

‘**다시근하다**’, ‘**되시근하다**’, ‘**되시근하다**’는 ‘**데시근하다**’의 다른 표기(형태)로 보인다. ‘**데시근하다**’는 ‘**데-삼다**’, ‘**데-익다**’, ‘**데-식다**’ 들처럼 접두사 ‘**데-**’가 붙은 파생어의 하나다. ‘**데-**’는 ‘제대로 충분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접두사. ‘**시근하다**’는 ‘빠마디 같은 것이 좀 시다’를 이르는 말이다. ‘다시근하다’, ‘되시근하다’, ‘되시근하다’의 인용례에 나타난 각각의 형태와 의미를 ‘데시근하다’에서 종합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 뜻바탕은 빠마디 같은 데에 느끼는 거북한 느낌과, 보기에 시들하거나 미적지근한 태도를 형용하는 두 외연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근하다 [형] -> 데시근하다. | 주1 ‘-’는 표준(기준) 올림말로 이끄는 표.

되시근하다 [형] -> 데시근하다.

되시근하다/다시근하다 [형] -> 데시근하다.

데시근하다 (데-시근-하다) [형]

① (빠마디 같은 것이) 약간 시근하거나 약간 쓰끄끔하다.

*막봉이가 한 몽둥이에는 첫번에 비키면서 곧 붙잡고 한 몽둥이에는 **어깨바디(어깨바디)**를 얻어맞았으나 **되시근하게도(데시근하게도)** 여기지 **않고** <홍명희: 임격정>(조선일보, 1939. 일부, 현대 철자로 고쳐 인용함). | 주1 ‘어깨바디’는 ‘어깨부들기’와 같은 말. 어깨의 뿌리, 또는 그 언저리.

*도적이 … 총각의 골통을 할로 쳤다. 다른 사람 같으면 고만 앞으로 **고끄라질(꼬꾸라질)** 것인데 총각은 **되식은 하게도(데시근하게도)** 여기지 **않고** **꿋꿋이** 서 있다 <홍명희: 임격정>(조선일보, 1939. 일부, 현대 철자로 고쳐 인용함)

*선홍이는 묶인 팔과 등판에 은근히 힘을 주어보았다. **되시근하기**는(**데시근하기**는) 하였으나 일시에 힘을 주면 **꿋꿋** 듯도 하였다. <황석영: 장길산>

*가령 부용이와 같이 약한 사람이 아무리 급하게 가다가 가슴을 들박았다 **할지라도** 소등때기에 **모기지** **데시근하게도** 여기지 **않을** 녀석이었다(녀석이었다). <김용식: 설랑자>(연변, 1984)

② (말, 행동, 생각 등이) 시들하거나 미적지근하다. [비슷] 데식다.

***데시근한** 소리. ***행동이 데시근하다**. <조선말 사전>(북, 1961)

*상도는 그런 일에는 흥미가 없었지만 미순의 일이라 미신일망정 **데시근하게** 들을 수 없었다. <한설야 탐> ***창세도** 자기가 그녀에게서 감정이 점점 **데시근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윤림호: 물빛의 긴 려>(연변, 2001)

③ (주로, ‘여기다, 생각하다’와 함께 부정하는 표현에 쓰여) ‘대수롭다’의 뜻.

*격정의 **서글픈 말끝에** 다른 두형들은 모두 **회심하야** 하는데 **곽오주** 혼자 **되식은도(데시근도)** **않게** 여기며 “……” 하고 무뚝뚝한 말소리로 지껄어냈다. <홍명희: 임격정>(조선일보, 1939. 일부, 현대 철자로 고쳐 인용함)

*그 자식들이 편치 먹인 창문들을 어느새 다 고쳐놓았네.” (중략) “아무튼 걸작들이야.” “한 주일 정확쯤은 **데시근하게도** 안 여길걸.” <김학철: 격정시대>(연변, 1998)

국어사전의 인용례를 통해 소설 작품의 일부 어휘 형태나 표현이 초간본과 나중 판본이 다르고 또 남과 북의 판본에서 달라진 보기 하나를 소설 <임격정전> 등에서 보았다. (다음에 표)

■ 뜻풀이 깊고 더하기

달가니

이길재 / 겨레말큰사전 새어휘팀장

지난해에 달마가 제서 {달가니레} 다 터뒀다.(지난해에 잠마가 저서 냇둑이 다 터졌지).
{달가니를} 싹을 때두 온 생산대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싹구 했다.(냇둑을 싹을 때두 생산대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싹고 했지.)

위의 예에 나타나는 ‘달가니’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발주한 ‘2007년 해외 지역어 조사에서 중국 조선족 동포 사회의 말로 채록되었다. ‘달마가 제서 달가니레 터뒀다’와 ‘달가니를 싹을 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달가니’가 내나 강의 양 옆에 물이 넘쳐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싹은 ‘냇둑’이나 ‘강둑’을 뜻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한글》(7권 7호)의 ‘시골말’

‘달가니’는 ‘해외 지역어 조사에서 채록되기 훨씬 이전인 1939년 8월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한글》(7권 7호)의 ‘시골말’에 ‘달가니’는 ‘강 달가니’와 함께 ‘냇둑’의 평북 의주 방언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달가니’는 《한국고어방언사전》(1947), 《평북방언사전》(1981)¹⁾, 《조선어방언학》(1982)의 부록,²⁾ 《조선어방언사전》(1992)³⁾ 등에 계속해서 실리게 된다. ‘달가니’가 방언사전이나 방언 연구 관련 저서가 아닌 국어사전에 처음 실린 것은 1992년 남측에서 간행된 《우리말큰사전》이다. ‘달가니’는 북측에서 간행된 국어사전에 계속해서 실리지 않다가 2006년 《조선말대사전(증보판)》에 실리게 된다.

그런데 《조선말대사전(증보판)》에는 두 개의 ‘달가니’가 실려 있다. ‘달가니1’은 문화어로서 ‘강이나 바다 같은 곳에서 갑자기 폭 빠져 깊어진 곳’으로, ‘달가니2’는 ‘내륙(냇둑)’의 평북 방언으로 풀이되었다.

‘달가니1’은 아직까지 남측에서 간행된 사전에는 실리지 않은 단어로, 1969년 북측에서 간행된 《현대조선말사전(제1판)》에 처음 실렸다. 이후 ‘달가니1’은 《현대조선말사전(제2판)》(1981), 《조선말대사전》(1992), 《조선말대사전(증보판)》(2006)에도 계속해서 실렸는데, 그 뜻은 《현대조선말사전(제1판)》과 큰 차이가 없다.

‘달가니1’과 ‘달가니2’는 어떤 지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적 상관성을 갖지만, 그 뜻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형태가 같은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뜻을 갖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서로 상반된 뜻을 갖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달가니1’과 ‘달가니2’가 어떻게 서로 상반된 뜻을 갖게 되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뜻풀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달가니1’이 북측에서 최초로 간행된 《조선말사전》에는 실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북측의 문화어 정책의 일환이었던 1960년대 중엽의 ‘어휘정리사업’과 관련이 있다. ‘어휘정리사업’ 이후 《현대조선말사전(제1판)》 이후의 사전은 《조선말사전》에서 방언으로 풀이하였던 올림말의 상당수를 문화어로 풀이하였거나, 《조선말사전》에는 없던 방언들을 문화어로 수록하였다. 전자의 예로는 ‘강냉이’, ‘계사니’⁴⁾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다랑구’⁵⁾, ‘달재’⁶⁾ 등을 들 수 있다. ‘냇둑’의 의미를 갖는 평북 방언 ‘달가니’도 ‘달재’와 마찬가지로 《조선말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다가 ‘어휘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조선말사전(제1판)》에 문화어로 등재되었다. 그 과정에서 ‘달가니1’의 뜻풀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둘째, ‘달가니1’과 ‘달가니2’가 그 어원이 서로 다른 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말대사전(증보판)》에 ‘달가니’는 ‘달가니1’과 ‘달가니2’로 어배번호를 달리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말대사전(증보판)》은 두 단어가 현재에는 소리와 형태가 모두 같지만, 어원적으로는 서로 다른 말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두 단어의 어원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겨레말큰사전》에서 두 단어를 동음이의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달가니1’과 ‘달가니2’의 어원적 관계를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측과 ‘남북공동집필회’의 열리게 되면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겨레말큰사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1) 북측에서 간행된 사전.
- 2) 북측에서 간행된 방언 연구 관련 저서.
- 3) 중국에서 간행된 사전
- 4) 거위.
- 5) 두음: ①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 ② 고사리 따위의 산나물을 열 모슬 정도로 엮은 것.
- 6) 달곰이.

■ 남녘말 북녘말

개봉(開封)

_ 김완서 / 겨레말큰사전 책임연구원



▲영화관 단성사 1980년대 후반 모습
출처: <http://blog.naver.com/sako71?Redirect=Log&logNo=130088762904>

서울에 극장이 많지 않던 시절, 거의 모든 극장이 종로와 충무로에 모여 있던 시절이 있었다. 단성사, 피카다리, 서울극장, 허리우드극장, 대한극장, 국도극장, 명보극장 정도가 서울에 있는 개봉관의 전부이지 않았나 싶다.

그 시절, 사람들이 영화 한 편 보려고 1회 상영 시간 두 시간 전부터 아니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습은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아 있다. 내겐 람보가 그러했다.

왜 인기 있는 할리우드 영화가 들어오면 극장들은 앞다퉈 큼직하게 '○○○ 개봉 박두'라고 쓴 간판이나 플래카드를 내건다. '개봉박두'를 영어로 하면 '커밍 순',

우리말로 풀면 '며칠 이내에 영화 상영을 시작하니 줄을 설 준비를 하시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때의 '개봉'은 다른 말과 어울려 영화와 관련 있는 새로운 말을 만든다.

- 재**개봉**: 이미 상영하였던 영화를 다른 영화관에서 다시 상영하는 것.
- **개봉관**: 새로 만들었거나 새로 들어온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개봉'의 원뜻이 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개별 한자어의 뜻을 봐도 그렇고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봐도 그렇다.

개봉(開封)

- 한자어 뜻: 開 [개] 열다, 封 [봉] 봉하다
- 표준국어대사전: ① 봉하여 두었던 것을 떼거나 열.
- 조선말대사전: 봉해놓은 것을 떼는 것.

예전에 제작사에서 완성된 영화 필름을 각 영화관에 보낼 때 그 필름을 봉투나 필름통에 넣고 봉인하였다. 영화관에서는 봉한 것을 열고 필름을 꺼내어 영사기에 걸고 영화를 상영했다. 즉 영화관에서 봉한 필름을 여는 행위는 곧 '새 영화를 처음으로 상영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 의미는 지금도 왕성하게 사용되고 있다.

- 영화 광해 일본 **개봉** 확정, 내년 일본 전역서 **개봉** <대전일보>
- 스티브잡스 영화, 10월 10일 국내 **개봉** <헤럴드생생뉴스>
- <비 내리는 밤의 기적>이란 영화 보셨어요? 전 **개봉** 때 놓쳤다가 지금 명동극장에서 보구 오는 길예요. 《황순원: 일월》

남측에서 발간한 모든 사전에서 '개봉'의 두 번째 뜻풀이로 인정한 이 의미는 《조선말대사전》에 없다. 또한 북측 용례에서도 쓰임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곧 '개봉'의 두 번째 뜻풀이는 남측에서만 쓰인다는 것이다.